

대졸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종성(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신재열(아오야마가쿠인대학 지구사회공생학부, 조교수)**

김도현(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우진(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 목 차 >

- | | |
|--------------------|----------------|
| I. 서 론 | Ⅲ. 연구모형과 분석변수 |
| Ⅱ. 이론적 배경 | 1. 연구 대상 |
| 1. 청년자영업자 | 2. 연구모형 및 분석변수 |
| 2. 직업만족도의 개념과 구성요인 | Ⅳ. 분석 결과 |
| 3. 자영업자의 직업만족 영향요인 | Ⅴ. 맺음말 |
| | 참고문헌 |
| | Abstract |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대졸 청년자영업자 직업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적 자원은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업체 특성 관련 변수 중 소득수준은 직업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근무시간과 직업만족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기타서비스업에 소속된 청년자영업자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업무적합도와 직업만족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적합도를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전공일치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3가지 모두 직업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력 및 기술 수준에 적합한 자영업 일자리 및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자영업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창업과 진로 관련 체계적 통합교육이 이루어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01041603713@kookmin.ac.kr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지구사회공생학부, 조교수, rec419@hanmail.net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drkim@kookmin.ac.kr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drlee@kookmin.ac.kr

• 논문투고일 : 2021-04-08. • 수정일 : 2021-05-10. • 게재확정일 : 2021-5-31.

저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청년자영업자, 업무적합성, 직업만족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I. 서 론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더 이상 청년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자동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실업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청년창업을 일자리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여 창업 활성화를 국가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원석·주동범, 2016). 현 정부는 신규일자리의 상당수가 창업기업에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청년창업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스타 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R&D, 투자 등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 기반 창업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세금 등 청년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마을 조성 등을 통해 창업자 간 자율적 교류·협업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김종성·심재훈·김도현, 2020).

이를 반영하듯,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은 2017년 147만 명(2.6%)에서 2018년 167만 명(2.9%), 2019년 174만 명(3.1%)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수가 2017년 570만 명, 2018년 568만 명, 2019년 566만 명으로 감소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신재열·김종성, 2020).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청년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청년창업을 활성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부가조사)자료 중 지난 4년간 청년들이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청년자영업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2016년 78천 명에서 2017년 54천 명, 2019년 51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청년들의 졸업·중퇴 후 임금근로자의 수가 2016년 3,909천 명에서 2017년 4,012천 명, 2018년 4,054천 명, 2019년 4,070천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현재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첫 직장은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 2020).

그동안 청년창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이원석·주동범, 2016), 첫째, 청년층의 창업실태 및 현황분석을 토대로 청년창업 정책 및 활성

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와 창업 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관한 검증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박재환·박명수·김대엽, 2012; 변충규·성창수, 2013). 둘째, 창업교육과 창업 의도, 창업 의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인데, 주된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은 창업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석·이상명, 2015; 김용태, 2017). 최근에는 창업 관련 연구분야에서 청년자영업자의 진입과 이탈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황광훈, 2017; 신재열·김중성, 2020; 신재열, 2020).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구조가 50~6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분석 및 논의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20~30대 청년자영업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자영업자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황광훈, 2017). 또한, 최근에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 많은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청년자영업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창업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려면 청년창업자의 창업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한데(홍성희, 2005), 창업 이후의 성과는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의 대표적 성과는 소득이며, 비경제적 측면의 대표적인 성과는 직업만족이다(홍성희, 2005; 유홍준·김월화, 2015). 그러나 청년 자영업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진입과 이탈에 관한 실증분석이 시도되었을 뿐, 청년자영업자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원석·주동범,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대졸 청년자영업자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자영업자

‘청년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중 청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는 청년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청년’을 15~29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을 만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

업자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 배우, 프리랜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황광훈,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자영업자'를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15~29세의 청년 중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로 한정하고, 고용원이 있는 청년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청년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신재열 · 김종성, 2020).

2. 직업만족도의 개념과 구성요인

직업만족(Job Satisfaction)은 직업 활동 및 직업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욕구 충족의 결과물로서, 통상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정서 상태는 개인의 직업 활동 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cke, 1976; Luthana et al, 1981). 자영업자의 직업만족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우세하다(Blachflower & Oswald, 1998). 직업만족도의 구성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김우영 · 김웅규(2001)는 직업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수입, 직업 안정성, 업무 내용, 근무환경, 장래성으로 구성했고, 차성란(2001)은 수입, 안정성, 근무시간, 업무 내용, 근무환경, 장래성으로 보았다. 홍성희(2005)는 직업만족도를 소득,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환경, 발전가능성으로 구성했으며, 오유진(2009)은 소득, 안정성, 직무내용, 발전가능성, 근로환경,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로 구성했다. 이원석 · 주동범(2016)은 청년창업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업만족도를 사업소득,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업무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성했다.

3. 자영업자의 직업만족 영향요인

자영업자의 직업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인적 자본, 업무적합도, 사업체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적 자본영역에서는 학력과 직업만족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홍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초, 중, 고 졸업자에 비해 대졸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홍경아(2002)의 연구에서는 고졸 자영업자가 대졸 자

영업자와 비교해 직업만족도가 높았다. 성지미·안주엽(2003)은 성별과 교육 수준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남성자영업자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영업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에 따라 자영업성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업무적합도 영역에서는 대졸 청년자영업자의 경우는 자신의 기술 수준 대비 일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때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원석·주동범, 2016).

세 번째, 사업체 특성 영역에서는 자영업의 근무시간, 기업체 규모 및 산업에 따라서 직업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근무시간은 직업만족도와 관련 있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근무시간과 직업만족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희, 2000; 고선강, 2004). 즉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의 수는 직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급 종업원의 수가 많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원이 더 많은 직업만족도를 보였다(고선강, 2004). 그러나 홍경아(2002)의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족기업주의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종업원이 많을수록 기업의 인적 관리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업 관련해서는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과 이후인 1998년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1995년에는 전기, 수도, 건설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보다 더 높은 직업만족도(소득)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 부동산,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와 비교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김우영·김응규, 2001). 그러나 Lang & Johnson(1994)은 기업 규모와 직업만족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 규모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상황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기타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과 연령이 있다. 홍경아(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에서는 갖는 직업의 자율성 및 시간의 융통성으로 인해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오유진(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 자영업자의 직무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무 만족과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만족도는 낮아지다가 후기에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층은 직업에 대한 사기가 높아 직업 만족도가 높지만, 한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무에서의 권태 등으로 인해 직업만족도가 저하되어, 생애 경력으로 보았을 때 30대 초반에 직무만족도가 최저점을 이루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만족도는 높아

진다(Herzberg et al, 1957). 고선강(200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후기에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U자형이 나타나고 있다.

Ⅲ. 연구모형과 분석변수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자료인데, GOMS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6년에 처음 실시한 조사로서, 조사 초기에는 8년 이상의 웨이브를 추적하는 장기추적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특정년도의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패널 조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9년에는 2회까지만 추적 조사하는 단기패널조사(Short Panel Survey)형태로 바뀌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조사설계가 횡단면조사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다(이주현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졸업자부터 201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8까지 매년 실시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년 도에서 29세 미만의 청년자영업자를 추출한 후 합동데이터(Pooled Data)형태로 가공해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표 1>은 연도별 분석에 활용된 청년자영업자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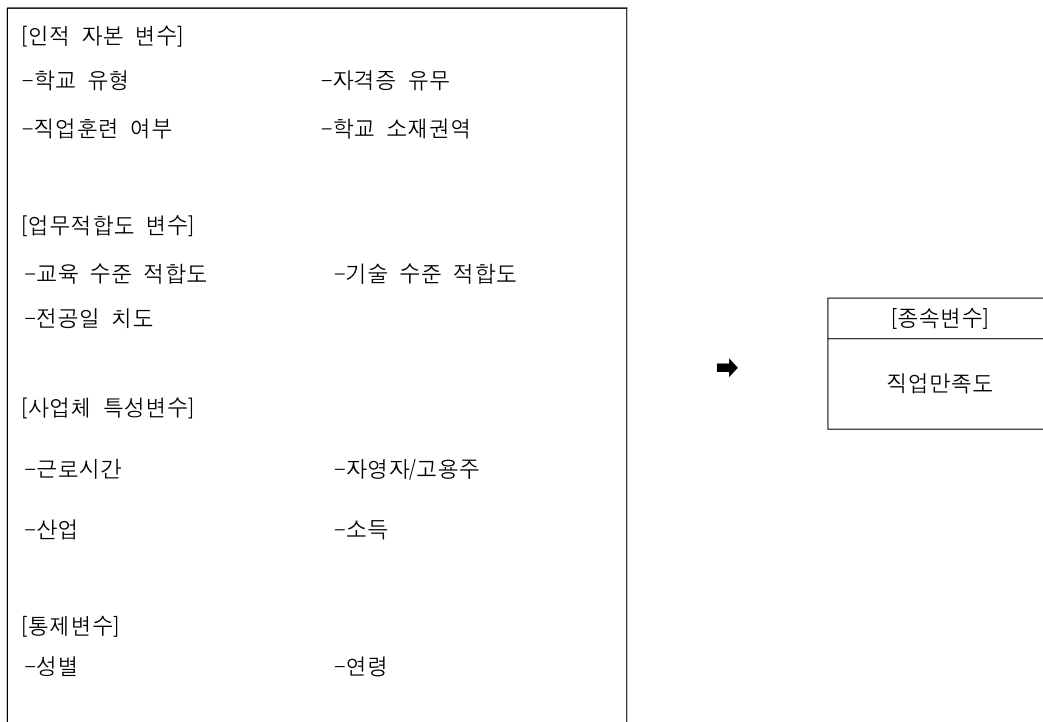
<표 1> 각 연도별 분석에 활용된 청년자영업자 규모

		2010 GOMS (2011)	2011 GOMS (2012)	2012 GOMS (2013)	2013 GOMS (2014)	2014 GOMS (2015)	2015 GOMS (2016)	2016 GOMS (2017)	2017 GOMS (2018)
전체		380	395	369	372	404	398	366	406
성 별	남성	206	230	193	198	221	226	211	231
	여성	174	165	176	174	183	172	155	175
규 모	고용원이 없는 청년자영업자 (자영자)	122	116	101	134	118	110	107	120
	고용원이 있는 청년자영업자 (고용주)	258	279	268	238	286	288	259	286

2. 연구모형 및 분석변수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했는데, 종속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해서 사업소득,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값을 합산하였다.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①인적 자본 관련 변수 ②업무적합도 관련 변수 ③사업체 특성 관련 변수로 구성했다.

<그림 1> 청년자영업자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첫째, 인적 자본 관련 변수로 학교 유형은 2~3년제와 4년제 대학으로 분리한 후, 2~3년제 대학을 준거집단으로 한 가변수(Dummy Variable)로 투입했고, 학교 소재권역은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구분한 후 서울권을 준거집단으로 해서 가변수로 투입했다. 이외에 직업훈련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1로, 없으면 0으로 한 가변수로 사용했으며, 자격증은 업무과 관련된 자격증이 1개라도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투입했다.

둘째, 업무적합도 관련 변수로는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전공일치도에 관한 문항을 사용했다. 교육수준적합도는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기술수준적합도는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기술(기능)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전공일치도는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편)입학 시 전공(주전공)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문항을 각각 사용했다.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다-낮다-알맞다-높다-매우 높다’ , 전공일치도는 ‘전혀 맞지 않는다-잘 맞지 않는다-보통이다-잘 맞는다-매우 잘 맞는다’ 5단계의 서열 변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직관적인 해석을 위해 각각 낮음/보통/높음의 3단계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적합도와 기술수준적합도는 ‘매우 낮다/낮다’ 는 ‘낮음’ 으로 ‘알맞다’ 는 ‘보통’ 으로 ‘높다-매우 높다’ 는 ‘높음’ 으로 재분류하였다. 전공일치도는 ‘전혀 맞지 않는다-잘 맞지 않는다’ 는 ‘낮음’ 으로 ‘보통이다’ 는 ‘보통’ 으로 ‘잘 맞는다-매우 잘 맞는다’ 는 ‘높음’ 으로 코딩하였다. 이후 항목별로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한 후 보통을 준거집단으로 해서 가변수로 투입했다.

셋째, 사업체 특성변수로는 근로시간, 자영자/고용주 여부, 산업, 소득을 투입하였다.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였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자)’ 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하 고용주)’ 로 구분한 후, 고용주를 준거집단으로 해서 가변수로 투입했다. 산업은 10차 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 도소매/숙박 음식/운송,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제조업에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건설업이 포함되었으며, 도소매/숙박 음식/운송업에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업을 준거집단으로 해서 가변수로 투입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성별은 가변수로 여성이면 0, 남성이면 1의 값을 부여했으며, 연령은 만나이를 투입했다. <표 2>는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비고
[인적 자원 변수]				
대학 구분: 4년제 졸업	3090	0.77	0.42	준거집단 : 2~3년제 대학
대학 소재권역: 경기권	3090	0.25	0.43	준거집단 : 서울권
대학 소재권역: 충청권	3090	0.15	0.36	
대학 소재권역: 경상권	3090	0.23	0.42	
대학 소재권역: 전라권	3090	0.12	0.33	
직업훈련 유무	3090	0.10	0.30	0=없다 1=있다

자격증 유무	3090	0.15	0.36	
[업무적합도 변수]				
교육 수준의 일 수준 일치도				준거집단 : 알맞음
일의 수준이 낮음	3090	0.23	0.42	
일의 수준이 높음	3090	0.15	0.35	
일의 기술-본인 기술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이 낮음	3090	0.22	0.41	
일의 기술 수준이 높음	3090	0.14	0.34	
일의 내용-주전공 일치도				준거집단 : 보통
안 맞음	3090	0.32	0.47	
잘 맞음	3090	0.47	0.50	
[사업체 특성변수]				
자영자	3090	0.30	0.46	준거집단 : 고용주
소득	2983	225.75	231.90	
근로시간	3089	40.08	25.12	
산업: 서비스업 기타	3030	0.63	0.48	준거집단 : 제조업
산업: 판매서비스	3030	0.28	0.45	
[통제변수]				
성별	3090	1.44	0.50	0=여성, 1=남성
연령	3090	26.36	2.01	
[종속변수]				
직업만족도	3090	17.38	3.36	

IV. 분석 결과

대졸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2018년도 자료를 통합한 뒤(Pooled data)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회귀분석 시에 이론적으로 설정된 단계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회귀분석에서 더 많은 수효의 예측변수를 가지는 회귀모형과 더 적은 수효의 예측변수를 가지는 회귀모형이 서로 비교되는데 이때 더 큰 모형이 더 작은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 두 모형은 서로 위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작은 모형에 있는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고서 추가되는

새로운 예측변수(집합)가 준거 변수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보기 위하여 이러한 위계적 관계의 방정식을 비교하게 되며, 그 과정을 위계적 회귀분석이라고 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표 3>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로서, 모델 구축은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으로 모형 1에서 모형 4까지 확장하였다. 모형 1에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이후 모형 2에는 사업체 변수, 모형 3에는 업무적합도 변수, 모형 4에는 인적자원변수를 추가하였다. 각 모형별로 AIC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모형 3이 최적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모형 1에서 모형 2로, 모형 2에서 모형 3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으나, 모형 3에서 모형 4는 모형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형 4에서 인적 자원변수의 통계적 효과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델의 간명성(parsimonious)을 위하여 모형 3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표 3> 청년창업자의 직업만족도영향요인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19.25(1.00)***	19.69(1.02)***	19.22(0.99)***	19.40(1.08)***
[인적 자원변수]					
대학구분: 4년제 졸업					0.25(0.16)
대학 소재권역: 경기권					0.08(0.17)
대학 소재권역: 충청권					0.02(0.19)
대학 소재권역: 경상권					0.19(0.17)
대학 소재권역: 전라권					0.30(0.21)
직업훈련 유무					0.24(0.20)
자격증 유무					0.18(0.17)
[업무적합도 변수]					
교육 수준 적합도	수준이 낮음			-1.249(0.22)***	-1.24(0.22)***
	수준이 높음			0.43(0.21)*	0.42(0.21)*
기술 수준 적합도	수준이 낮음			-0.49(0.22)*	-0.49(0.22)*
	수준이 높음			0.15(0.21)	0.14(0.21)
전공 일치도	안 맞음			0.08(0.17)	0.08(0.17)

대졸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잘 맞음			0.69(0.16)***	0.69(0.16)***
[사업체 특성변수]					
자영자		0.22(0.14)	0.17(0.14)	0.15(0.14)	
소득		0.002(0.00)***	0.002(0.00)***	0.002(0.00)***	
근로시간		-0.01(0.00)***	-0.01(0.00)***	-0.01(0.00)***	
산업: 서비스업 기타		-0.73(0.23)***	-0.74(0.22)***	-0.75(0.22)***	
산업: 판매서비스		-0.99(0.23)***	-0.44(0.23)	-0.42(0.23)	
[통제 변수]					
성별	-0.04(0.13)	0.09(0.14)	0.12(0.14)	0.08(0.15)	
연령	-0.06(0.03)*	-0.07(0.03)*	-0.05(0.03)	-0.075(0.04)*	
[공분산(Covariance Parameters)]					
잔차(Residual)	11.21(0.28)	10.83(0.28)	10.12(0.26)	10.12(0.26)	
상수(Intercept Variance)	0.07(0.05)	0.04(0.04)	0.03(0.03)	0.03(0.03)	
-2LL	16255.42	15318.81	15125.78	15128.89	
AIC	16259.42	15322.81	15129.78	15132.89	

***p<.001 **p<.01 *p<.05

모형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적 자원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성별, 연령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사업체 특성변수는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만족도는 낮아진다. 또한, 자영업자와 고용주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기타서비스업에 소속된 자영업자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서비스업과 제조업 사이에는 직업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업무적합도와 직업만족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적합도를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전공일치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3가지 관련 변수 모두 직업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본인의 학력보다 낮을 경우, 직업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자영업자가 보유한 학력보다 높으면 직업만족도는 높아졌다. 기술 수준에서는 자영업 일자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고 해서 직업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영업 일자리에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낮으면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일치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졸자 본인의 전공과 자영업 일자리가 매칭되지 않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공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기술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은 자영업의 일자리를 선택할 경우, 직업만족도가 낮아지며, 학력이나 전공이 일치하면 할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력 및 기술 수준에 적합한 자영업 일자리 및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자영업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창업과 진로 관련 통합교육이 필요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청년자영업자의 직업 만족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청년자영업자 직업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해서 사업소득,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값을 합산하였다.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 조사된 문항을 중심으로 ①인적자본관련변수 ②업무적합도관련변수 ③사업체특성관련변수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인적 자원은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체 특성변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만족도는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기타서비스업에 소속된 자영업자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서비스업과 제조업 사이에는 직업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업무적합도와 직업만족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적합도를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전공일치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분석 결과 3가지 변수 모두 직업만족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영업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본인의 학력보다 낮을 경우, 직업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자영업자가 보유한 학력보다 높으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청년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력 및 기술 수준에 적합한 자영업 일자리 및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자영업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창업과 진로 관련 통

합적 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라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직업만족도에 대한 측정 항목이 다소 정교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설문 문항을 개발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결과의 의의가 더 커지겠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직업만족 영향요인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면 청년자영업자의 직업 만족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태석·서선숙(2020).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교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3(1), 193-219.
- 고선강(2004). “가족기업의 무급가족종사원에 관한 연구: 일 관련특성과 직업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2), 43-59.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 김응규·박치관(2001).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은가?”, 「한밭대학교 논문집」, 18, 439-454.
- 김우영·김응규(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29-5.
- 김종성·심재훈·김도현(2020). “창업 인프라 기관의 지역 고용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N사 파트너스퀘어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3), 223-231.
- 박재환·박명수·김대엽(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27(3), 133-144.
- 변충규·성창수(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1), 1-14.
- 성지미·안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1.
- 신재열·김종성(2020).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1), 247-257.
- 신재열(2020). “첫 일자리로서의 자영업 선택이 직업력과 노동조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KLI패널 위킹페이퍼」, 제6호, 1-30.
- 오유진(2009). “만족도를 이용한 자영업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2(2), 281-296.
- 유홍준·김월화(2015). “학교에서 창업으로 이행”, 「직업능력개발연구」, 18(3), 1-25.
- 이원석·주동범(2016). “대졸 청년창업자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열린교육연구」, 24(4), 139-161.
- 이주현·박은규·김미경·조지연, 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2018.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차성란(2001). “가족기업경영 가정의 직업 및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9), 21-13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2020.
-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 홍경아(2002). “가족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홍성희(2000).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특성과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5-126.
- 홍성희(2005). “소규모자영업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5-126.
- 황광훈, 늘어나고 있는 청년자영업자, 한국고용정보원, 2017.

(2) 국외문헌

- Blachflower, D. G. & Oswald, A.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 Herzberg, F. I., B. Mausner., R. O. Peterson & D. R. Capwell., Job Attitude: Review of Research and Opinion, Pittsburgh, PA: Psychological Service of Pittsburgh. 1957.
- Lang, J. R. & N. B. Johnson(1994). “Job Satisfaction and Firm Size: Interactionist Perspective,” Journal of Socio-Economics, 23, 405-424.
- Locke, E. D.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 Luthans. F., Paul, R. & Baker, D. (1981). “An experiment analysis of the impact of contingent reinforcement on salespersons’ performance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6(1), 214-323.

<Abstract>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s' Young Self-employed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young self-employed people's job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2011–2018 of the GOM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e use a hierarchical regression to confirm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job satisfaction of young self-employer.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did not affect the job satisfaction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Second, in the business dimension, income i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 but working hours and job satisfaction are negatively (–) related. Also, comparing the manufacturing sector, young self-employed people tend to have low job satisfaction in other service sectors. Third, the most important finding is that job suitability and job satisfaction are highly correlated. In this study, we decompose work suitability into three dimensions; education level suitability, technical level suitability, major consistency. All of them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Therefore, universities must provide systematic integrated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areers for reasonable job matching in the self-employment job market. This kind of work improves the job satisfaction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KeyWords : young self-employed people, job suitability, job satisfaction,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